

1/16/22

설교 제목: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향에 관한 규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30 장 1-38 절

- (출 30: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출 30:2)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출 30:3)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를지며
(출 30:4) 금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꿰 곳이며
(출 30:5)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출 30:6)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출 30: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출 30:8)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 30: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출 30:10)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 (출 30: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0: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출 38:25, 민 31:50, 삼하 24:15
(출 30: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절관주** 마 17:24
(출 30:14)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출 30:15)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출 30: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절관주** 출 38:25

놋 물두멍

(출 30: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0: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출 30: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절관주** 출 40:31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거룩한 향기름

(출 30: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0:23)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출 30: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가지고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출 30:26)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법궤

(출 30:27)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출 30:28)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출 30:29)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만나라 하였으며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절관주** 출 29:37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 (출 30:3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 (출 30:32)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절관주** 출 30:25
- (출 30:33)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거룩한 향

- (출 30: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 (출 30: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 (출 30:36) 그 향 얼마를 곱게 짊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절관주** 출 29:42
- (출 30: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 (출 30:38)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막 기물 중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향에 관한 규례입니다.

1-10 절은 분향단에 관한 규례, 11-16 절은 성막 제도 기금으로 쓰일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 17-21 절은 물두멍에 관한 규례, 22-33 절은 관유에 관한 규례, 34-38 절은 분향단에 쓰일 향 제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관한 규례

분향단은 '향단' 또는 조각목에 금을 입혔다 하여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 성소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분향단의 좌우 즉 남쪽에는 등대 북쪽에는 떡상이 위치합니다.

- (출 30: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 (출 30:2)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 (출 30:3)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를지며

(출 30:4) 금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켈 곳이며

(출 30:5)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조각목을 재료로 하여 길이와 너비가 각각 1 규빗(약 45cm), 높이 2 규빗(약 90cm)의 직육면체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조각목은 시내 반도, 팔레스틴, 아라비아 반도 등 중근동 지역에 널리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해 성물들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분향단의 상면 네 귀퉁이에는 단과 이어지게 뿔을 만들어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라고 하십니다.

몸체 아래 부분에 채를 꿰어 운반하도록 한 법궤와 떡상과는 달리 금테가 둘러쳐진 바로 아래로 양편에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채를 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금고리도 법궤와 떡상에 네 개를 만들었던 것에 반해 분향단에는 두 개만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분향단이 법궤나 떡상 받침대에 비해 비교적 가볍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싸았습니다.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곧은 성품,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정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씩 분향단에 향을 사르라고 하십니다.

(출 30:6)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출 30: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출 30:8)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은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면서 간밤에 켜 둔 등불을 끄고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고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했고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면서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의 연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중보 사역을 나타냅니다.

번제단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분향단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롬 8:34)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향단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제사로 인해 분향단이 오용되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출 30: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출 30:10)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일 년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제의 피로 향단 뿔을 위하여 분향단을 속죄하라고 하십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분향단이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분향단 역시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정결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 16:18,19).

지성소에만 사용된 '지극히 거룩하다'는 수식어가 분향단에 사용된 것은 분향단 역시 지성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

속전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로 성막 건립과 유지에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함으로써 구속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속전은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바뀌어져 성전의 보수와 유지 그리고 각 지방 회당의 유지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출 30: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0: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 30: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출 30:14)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출 30:15)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출 30: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여 만 20 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에게 반 세겔씩 속
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인구 조사는 생명의 속전을 위한 목적 외에도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는 이십 세로 이때가 되면 남자는 국방 의무를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빈부에 상관없이 반 세겔로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
다는 만민 평등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데 질병은 흑사병과 같은 역병을 일컫는 말로 곧 죽음을 뜻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곧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는 생명의 속전 곧 구속이 필
요함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몸소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두멍에 관한 규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놋으로 만든 일종의 큰 대야입니다.

물을 채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두어 제사장들이 성소를 출입할 때나 제사를 집례할 때 제물의
피로 인해 더럽혀진 의복과 손발을 씻어 정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물두멍에 채워진 물은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출 30: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0: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출 30: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세한 식양이나 제작 규례는 없고 다만 물두멍과 받침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거울을 통해 죄를 깨닫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아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유에 관한 규례

관유는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하십니다.

(출 30: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0:23)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출 30: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가지고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유를 섞어서 만듭니다.

액체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의 즙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인데 주로 여성용 향수 화장품 의 료용 마취제 시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육계는 녹나무과의 상록 교목으로 월계수 나무와 흡사한데 이 나무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으로 원래는 식용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되었으며 후대에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애용된 고급 향품으로서 다른 일반 방향제와 비교하여 특별히 향이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단오에 창포에서 짠 즙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피는 오늘날의 계피와 거의 유사한 맛과 향을 가진 식물입니다.

감람 기름은 감람 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olive oil)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용 등불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무게의 단위로 세겔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성소 세겔,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 일반 상거래에 사용되는 일반 세겔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반 세겔이 가장 가벼웠던 듯합니다.

'힌'은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로 원래는 물이나 술을 담아두는 단지였으나 후에 이 단지의 용량이 액체 측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힌은 약 3.7ℓ에 해당합니다.

관유를 사사로이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 30:26)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법궤

(출 30:27)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출 30:28)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출 30:29)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만나라 하였으며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출 30:3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출 30:32)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출 30:33)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거룩한 기름이 일상적인 목적 즉 의약품 식용 화장품 등으로 사용되어 부정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기름은 오직 성별 의식에만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룩한 관유를 모방하여 만들거나 제사장 아닌 사람에게 관유를 붓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추방을 뜻할 수도 있고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향에 관한 규례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 드리워진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 준비해 놓았다가 제사장이 분향을 드릴 때마다 준비된 향의 일정량을 곱게 짊어서 향단에 불살랐습니다.

관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조 방법과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출 30: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출 30: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출 30:36) 그 향 얼마를 곱게 짊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¹⁾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 30: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출 30:38)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과 같은 향품에 유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소합향은 몰약의 수액에서 정제한 향이고 나감향은 지중해 연안의 어패류 껍질에서 채취한 향이며 풍자향은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라는 관목 줄기에서 채취한 고무향과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띠는 향입니다.

유향은 감람과의 관목 껍질에서 흘러나온 수지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향에 부패 방지 기능을 가진 소금을 쳐 성결하게 한 것은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듯이(레 2:13)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와 가슴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대제사장과 같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번제단에서 구속하신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수함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전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